

## 신규제과점 증가세 큰 폭 하락 서울·인천 전년 대비 22% 감소



증가세를 보이던 신규 제과점 개점이 올해 들어 크게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신규 제과점의 개점 현황 파악을 위해 대한제과협회에서 실시한 신규업주위생교육 수료자를 조사한 결과 98년 11월까지 서울·인천 지역의 신규 점포는 총 845개로 97년 같은 기간의 1,078개보다 233개가 줄어 들어 무려 2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7년에는 96년 11월까지의 신규 개설수인 924개보다 154개가 많아 16.6% 증가했었다. 이처럼 매년 16% 가량의 신규 제과점이 증가했던 경향으로 비추어 볼 때 올해 21.6%가 줄어 든 것은 사실상 예년에 비해 40% 가량 개설수가 감소한 것이다.

3년 동안 서울·인천 지역의 신규 제과점 개설 현황에 따르면 97년의 경우 96년 11월까지의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점이 증가했으나 98년 들어 IMF의 영향으로 점포 증가가 크게 줄었으며, 특히 IMF에 따른 위기 의식이 강했던 6월까지의 신규 점 개설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96~98년 서울·인천지역 신규점 개설 현황

	2월	3월	4월	6월	8월	11월	계
96년	140개	137개	106개	258개	152개	131개	641개
97년	223개 (+59.2%)	206개 (+50.3%)	140개 (+32.0%)	263개 (+1.9%)	134개 (+32.0%)	112개 (-14.5%)	1,078개 (+16.6%)
98년	152개 (-31.8%)	130개 (-36.8%)	135개 (-3.5%)	196개 (-25.4%)	109개 (-18.6%)	123개 (+9.8%)	845개 (-21.6%)

\* ( )은 전년도 대비 증감률임.

## 바로방, 베이커리사업 공식 포기 부서 해체 등 회사정리 절차 들어가

바로방(대표 정종득)이 결국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바로방은 지난 3월말 약 4억원의 부도를 낸 뒤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데다 지난 9월 할부금융회사인 크나무파이낸스의 퇴출 이후 모기업인 크나무식품의 자금지원이 경색되어, 지난 11월 중순경 베이커리사업 포기를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로방은 최근 사업자등록증 반납, 사업부서 해체 등 본격적인 정리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각 거래처에 12월 1일 채권자회의를 소집해 채무변제 조건 등을 협의하겠다는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했다.

한편 올초 20여개에 이르던 바로방 가맹점들은 4월 이후 자체생산 비중을 90%대로 높이는 등 독립 운영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본사의 사업 포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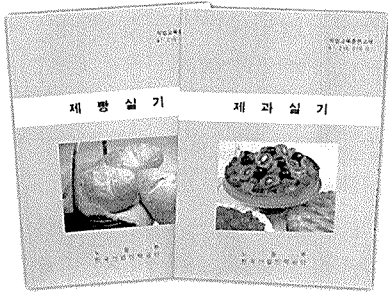
## 대형기업, 벤처기업 지정 추진 해외 진출 위해 생산시설 확충 검토

제과용 냉동기류 생산업체인 대형기업(대표 김대인)이 제과기계 업계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지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기업은 지난 10월말 벤처기업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한편, 11월중으로 예정된 현장 실사에 대비한 평가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벤처기업 지정은 서류 및 현장 실사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각 업종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 연리 10% 이내의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제과기계 업계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기업은 벤처기업 지정이 성사될 경우 내년중 성남 공단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곳에 양산설비를 갖춰 향후 일본 등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과 제빵 열기로 교재 출간 잇따라 실기·이론서 이어 CD롬도 출간 예정



제과 제빵 관련 교재가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올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기 시험 품목과 실용 제품을 수록한 '제과실기'와 '제빵실기'를 발간한 데 이어 현대제과기술학원의 김영석 원장도 실기 품목과 이론, 실용 제품으로 구성된 '제과제빵실기'를 출간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의 이재홍 과장과 청강문화산업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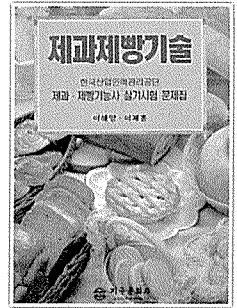
양 교수가 실기 품목을 위주로 기능 감정 수험 안내, 교육 기관 등을 자세히 소개한 '제과제빵기술'을 선보였다.

한편 12월에는 필기 과목을 한데 묶은 단행본을 제과학교 흥행홍 교장이 집필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간하며, 내년에는 배합표와 작업공정을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비디오 형식의 제과제빵 CD롬이 최초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들 교재들은 기능사 시험 품목을 과거와는 달리 칼라 제품 사진을 사용해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풀이하고 현장에 필요한 제품을 일부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교재 출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올들어 제과 제빵 수강 열기와 학원 등 교육 기관이 급증해 수요 기반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 '제과제빵기술' 문제집 발간 기능사 감정 위한 다양한 정보 수록



지구문화사에서 기능사 실기시험용 문제집인 '제과제빵기술'을 발간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건강식품과 교수 이해양씨와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 교육과장 이재홍씨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기능사 실기품목의 배합과 공정은 물론 기본재료에 대한 소개 및 기본적인 반죽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 시험의 응시방법 및 절차, 실기시험시 주의할 사항과 국내외 일본, 프랑스의 제과 교육기관 안내, 제과점 창업 요령 등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권당 1만 5,000원이다

■문의 : 02-396-0370

## 삼성이벤트 지방 출점 전국판매망 구축 점포 개설 본격 추진, 소사장제 도입 예정

삼성이벤트(대표 이재홍)가 주요 지방권역에 파티·이벤트용품점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선다.

제과점 이벤트 대행 및 이벤트용품 판매업체인 삼성이벤트는 지난 11월 16일 동인천역점 오픈을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지방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관측 행사를 많이 볼 수 없는 지역일수록 이벤트 효과가 높아 지방 출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부산, 대구 등 주요 권역마다 점포를 개설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삼성이벤트는 이미 전국 주요 직할시에 입점 후보지를 선정,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 아이템 선정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 대리점 성격이 강한 이들 점포는 운영 회담자가 7,000만원 정도를 출자한 뒤 매출액의 35%를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소사장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이벤트는 본격적인 지방 출점을 앞두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유망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이벤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 저성유통, 외플·타르트 수입 日本 기망시사 냉동생지와 프리믹스

저성유통(대표 황덕운)이 이달부터 외플, 타르트, 케이크 등을 수입한다.

저성유통에서 수입하는 이 제품은 일본 기망시사 제품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제품과의 경쟁력을 고려해 맛을 개량해 품질을 차별화한 상품이다.

이 업체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와 홍보에 돌입할 예정이며 기망시사의 제품 외에 유럽의 제과 업체로부터 추가로 다른 제품도 수입할 계획이다.

## 양산업체, 시장잠재력 큰 할인점 영업 강화 전문 브랜드 개발, 유통망 확대 적극 추진키로

대형할인점의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양산업체들의 할인점쪽 매출이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6년 대형유통점 브랜드 「포메트 베이커리」를 개발한 사니는 기존 거래처인 E마트에 이어 최근 들어 까르푸에도 제품 공급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니는 올해 할인점 매출이 지난해 46억 9,500만원보다 130% 정도 신장된 11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존 신데라를 대체할 할인점용 브랜드로 「브레드빌」을 개발한 삼립식품도 울들어 마크로,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영업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시장 확대에 힘입어 삼립식품 역시 지난해

보다 120%가 신장된 58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할인점용 브랜드인 「맨티즈」를 통해 E마트, 코오롱마트,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공급해온 서울식품도 아울렛, 코렉스 등으로 거래처를 점차 확대, 지난해 11억 6천만원보다 최소 4억원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린 역시 지난해부터 「휘밀리 베이커리」를 개발, 대형유통점 공략에 나선 이후 최근까지 거래처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할인점쪽이 이처럼 큰 폭의 매출 상승세를 나타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점포당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각 할인점들의 점포 개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일산 · 의정부 지역, 제과기술학원 개원 수도권 공략, 학원규모 갈수록 대형화 추세



그동안 제과학원이 없었던 일산과 의정부 지역에 제과학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제과제빵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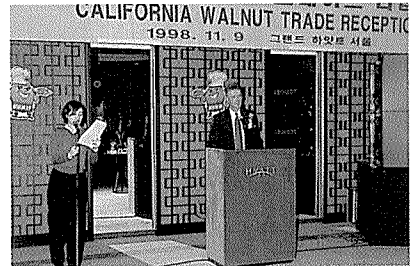
지난 11월 문을 연 일산제과제빵학원(원장 김용석)은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주엽역 바로 입

구에 위치, 교통편이 편리한 이곳은 일산지역과 원당, 화정 지역 사람들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120평 규모의 이 학원은 3명의 전임강사가 정규반 1년과정과 기능사반 6개월 과정, 취미반과 데커레이션반 3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문의 : 0344-911-6017~8).

한편 12월 중순에는 창동과 강남에 학원을 운영중인 김상엽제과학원(원장 김상엽)이 의정부 지역에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의정부 4동에 위치한 이 학원은 총 100평 규모로 전임강사 3명이 제과반 6개월 과정과 제빵반 6개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문의 : 0351-841-0097~8).

##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리셉션 밸린트씨 양질의 제품 공급 약속



미국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지난 11월 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베이커리 관련 업계 인사들을 초청, 각테일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캘리포니아 호두를 홍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데니스 밸린트씨와 마케팅 이사인 네이산 홀리만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데니스 밸린트 본부 대표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호두를 많이 이용해 주신 업계 여러분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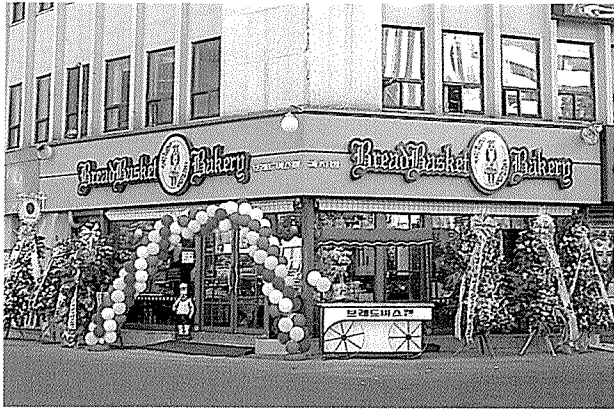
## 제과협, 전시회 연수단 모집 1월에 월드 파티세리 · 2월 모박쇼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내년 초 프랑스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할 연수단을 모집한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월드 파티세리’ 참관 연수단은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의 향토과자점 견학과 제과 명인인 M.O.F 및 BM 초청 세미나에 참가하며 도구 상가를 둘러 보게 된다.

한편 내년 2월 26일부터 일본 동경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모박쇼를 참관할 연수단은 내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과 28일까지의 3박4일 일정으로 모박쇼 참관 및 유명 제과점 견학, 포장 및 도구 상가를 둘러보게 된다. 연수단 신청 문의 ☎ 273-1830

## 푸른농원, 제과 가맹 사업 참여 유럽풍 고급 브랜드 '브레드 바스켓'



식품유통업체인 (주)푸른농원(대표 심영섭)이 지난 11월 명동에 '브레드 바스켓' 본점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가맹사업

체제에 돌입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부터 '브레드 바스켓'이란 상호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럽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다. 이 점포는 페이스트리와 조각 케이크 등 고급제품을 위주로 제품을 구성하는 한편 원하는 고객들에 한해 커피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가격대는 일반 제과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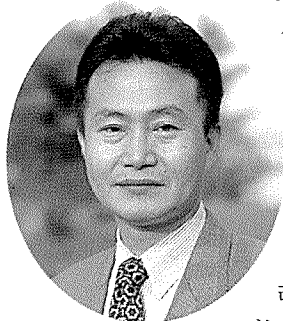
이 업체는 점포의 이미지를 고려해 실평수 20평 이상의 매장에 한해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별도의 가맹비 없이 본사에 매월 20여 만원의 회비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 업체는 본사에 기술지도 팀을 구성해 각 가맹점 기술자들의 세미나 참여 지원 및 본점에서의 자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술지도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현재 명동 본점 외에 시흥점과 장위점 등 3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올해 안에 노원과 마포 등에 2개의 가맹점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내년까지 20개의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빵잎 이용한 신제품 개발, 성인병 예방 효과 탁월

혜전전문대 조남지 교수



혜전전문대가 지난 3월 개설한 식품산업연구소에서 빵잎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성공, 지난 11월 특허를 출원했다. 빵잎은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과 동맥 경화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빵잎을 이용한 제품은 기능성 강화는 물론 맛도 뛰어난 시장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식품산업연구소의 주요 활동 및 연구 목적은?

식품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은 물론 포장디자인 개발이나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제과점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부존자원 활용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의 잠사근충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 빵잎의 특성은?

빵잎은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발효를 통해 중화시키는 기술을 개발, 제빵 적성을 높였다. 특히 발효과정을 거친 빵잎은 혈압 조절 기능을 하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지질대사와 관련된 망간, 아연이 증가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 시판 계획은?

이번 연구는 지난 11월,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 빵잎은 식빵이나 페이스트리 등의 빵이나 쿠키류를 제조할 때 2% 이내로 사용하면 기능성 강화는 물론 맛이 뛰어난 고급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가공 처리된 빵잎은 g당 5원으로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어서 시장성이 높은 재료다. 앞으로 각 업체에 기술을 이전시켜 제품을 생산, 시판할 계획이다.

- 식품산업연구소의 다음 연구계획은?

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쌀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양산 4사 상반기 매출 1,790억원 기록 올해 초 판매 신장세 하반기 들어 주춤

올 상반기중 삼립식품, 사니, 서울식품, 기린 등 양산 4사의 빵 부문 매출은 총 1,79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조사한 98년 1월~6월 양산빵 매출 동향에 따르면 동 기간내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사니 759억원, 삼립식품 680억원, 서울식품 130억원, 기린 221억원으로 밝혀져 경기침체도 불구하고 상반기 양산 빵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초 자영제과점의 가격인상 여파로 양산 4사의 상반기 빵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과점의 가격 인하가 보편화된 하반기 들어 양산빵 매출도 점차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올 12월까지의 양산빵 매출 총액은 지난해의 3,492억원에서 최고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양산 4사 빵부문 매출

(단위: 억원)

구 분	삼립식품	사니	서울식품	기린	계
96년	1,536	1,350	286	547	3,719
97년	1,227	1,495	236	534	3,492
98년 상반기	680	759	130	221	1,790

■ 97년 매출액중 삼립식품과 기린은 증권감독원 감사보고서 인용, 사니와 서울식품은 자사 발표임. 또한 98년 각 회사별 매출액은 추정치이므로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파리크라상 특판강화로 틈새 시장 공략 할인점 입점, 금강산 유람선 냉동생지 공급

(주)파리크라상(대표 김영덕)이 특판 강화를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1월 초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맹점을 오픈한 데 이어 11월 중순에는 금강산 유람선에 냉동생지를 공급하는 등 신규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농협측과 계약을 체결, 농협에서 운영하는 할인 유통점인 '하나로마트'에 파리크라상 가맹점을 오픈하기로 확정하고 지난 11월 7일 대구점에 첫 점포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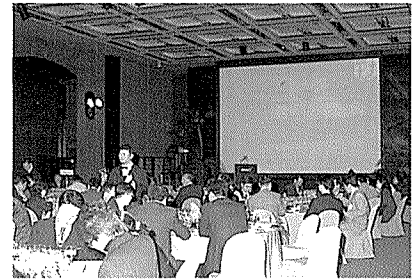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할인점 공략 브랜드인 '쌍트'를 개발, 기존에 파리바게트에 공급하던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 충전물을 변화시킨

40여 종의 제품을 새로 개발해 완제품과 냉동생지를 3:7의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하나로마트 대구점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양재와 창동, 부산점에도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며 내년에 문을 여는 용산과 광주 하나로마트에도 점포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지난달부터 금강산 유람선에 냉동생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유람선내 식당에 1차로 애플파이와 크로와상, 쇼콜라 등 4가지 품목의 냉동생지 약 5,000개를 공급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BRL Hardy사 와인시음회 개최 하얏트 호텔에서 11종류 시제품 선보여



지난 11월 5일 하얏트 호텔에서 호주 와인 생산 업체인 BRL Hardy사가 와인시음회를 개최했다.

호주대사관 및 와인업체 관련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시음회는 12월부터 시판 예정인 스파클링 와인을 비롯해 총 11종류의 와인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92년 BRL사와 Hardy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이 업체는 호주 최대의 와인생산 업체로 국내 와인전문업체인 대한주류주식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시음회의 반응에 따라 이날 선보인 신제품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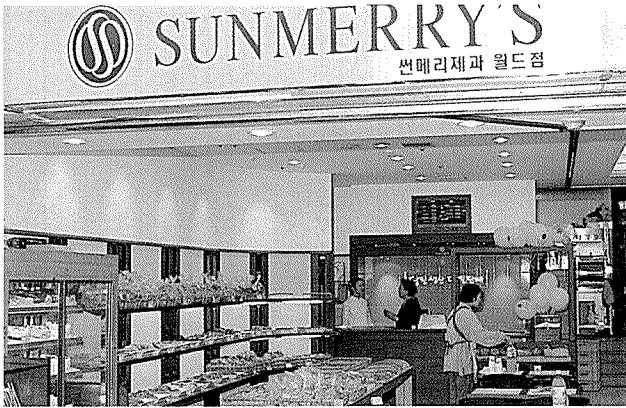
## 초콜릿 관세 인상 일단 보류 서울 인상시 가격 상승 불씨 남아

초콜릿 원료의 수입 관세 인상이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커버추어를 비롯한 초콜릿의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19.7%로 인상을 추진해 한때 초콜릿 취급 업체들을 긴장시켰으나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양산 초콜릿 업체가 관세 인상을 건의해 정부가 커버추어 등 초콜릿 원료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펜시 수입 초콜릿 관세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펜시 초콜릿 완제품 수입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썬메리 2개점 오픈, 점포 확산 본격화 카페형 베이커teria 가맹사업 계획도 확정



빙그레 썬메리(대표 신종훈)가 이달중 서울역 민자역사점을 비롯해 내년 2월 원주 한화마트에 가맹 3호점 입점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점포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썬메리는 지난 11월 중순 일본 썬메리사의 기술인 3명과 영업 전문가 2명을 남양주시 본사로 초빙, 자사 점포의 제품 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제품 테스트를 마쳤다.

2년전 연 매출액의 1.5%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본 썬메리사와 기술지원 계약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썬메리는 지난 9월 이대 앞에 문을 연 베이커teria 매장이 평일 170만원, 주말 220만원대의 매출 호조를 기록한 데 힘입어 99년 10월까지 10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가맹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이 베이커teria는 70% 이상을 가맹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매출 안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대학가 상권으로 입점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체결한 썬메리는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썬메리 매장의 제품 구성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

또한 이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조심스런 점포 확산 움직임을 보여

## 한미학원 4기 고급과정 모집 내년 1월 11일까지 20명 선착순

한미제과기술학원(원장 김영선)이 4기 고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4기 고급과정은 각종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로 강사진을 구성해 12주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이며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중견기술인을 위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에어브러쉬' 기법과 국내 실정에 맞는 '화과자', 다양한 데커레이션 기법 및 '웨딩케이크'의 장식물 제작 노하우를 중심으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 (02)957-6080

## 대두식품 '화과방' 가을호 발간 화과자 제품 및 재료 상식 등 수록

대두식품(대표 조성룡) 사보인 '화과방' 가을호가 지난 11월 발간됐다.

'화과방' 가을호에는 호리 마사유키씨의 화과자를 비롯해 재료상식, 대두식품의 취급 상품, 생활 속의 지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화과방은 앙금업체인 대두식품이 앙금을 이용한 제품 확산을 홍보하기 위해 계간으로 발행하는 제과기술정보지다.

## 주소 이전

- 청산무역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4 미주빌딩 508호 ☎561-7251
- 광성공업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85-19 경성빌딩 1층 ☎691-5974
- 진원기계 - 본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36-58 ☎929-0774, 926-7542  
전시장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24 ☎953-2644

## 삼립식품 호빵 판촉 이벤트 '로드쇼'

### 주요 상권 순회 김치호빵 등 신제품 홍보

삼립식품이 신촌, 테크노마트 등 주요 상권을 순회하며 호빵 판촉 이벤트인 '로드쇼'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면서 호빵 매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삼립식품에서 개최한 호빵 무료시식회 등 이벤트는 김치호빵과 고구마호빵 등의 신제품 홍보를 위한 것.

삼립식품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출시한 김치호빵이 히트 조짐을 보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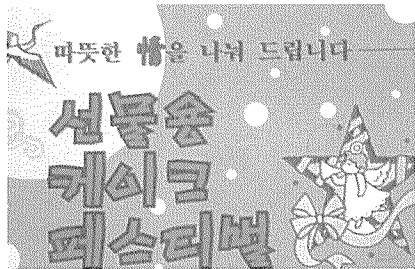
판매 호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판촉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삼립식품은 신제품 판매가 예상외의 호조를 보여 올 겨울 호빵 매출을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150억원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동남아 수출을 통해서도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립식품은 최근 TV 협찬광고 내용을 아임베이커에서 호빵으로 교체하는 한편, 라디오광고 등을 통해서도 제품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 중앙회, 성탄절용 현수막·POP 배포

12월 7일까지 신청, 배부는 15일부터 실시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가 제작하는 현수막은 가로 160cm 세로 80cm 크기로 단가는 1,300원이며, P.O.P는 장당 400원이다. 현수막과 P.O.P를 원하는 회원 업소는 해당 지회 및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현수막과 P.O.P는 12월 7일까지 신청받아 12월 15일부터 배부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업소의 매출 신장을 위해 현수막 및 P.O.P를 제작

## 성북지회, 기존 영업주 교육 실시

식품 위생 및 법규, 제과점 경영 등 교육



이날 교육은 교육 대상 146개 업소 중 119개 업소가 참가해 식품 위생 및 법규와 제과점 경영에 대한 설명회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지회(지회장 최부근)는 지난 10월 27일 성북구청 대강당에서 '98 기존 업주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 광주, 임시 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

정기 총회 대의원제로 치루기로 결정



참가한 가운데 임시 총회 및 추계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광주지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개최해 앞으로 정기 총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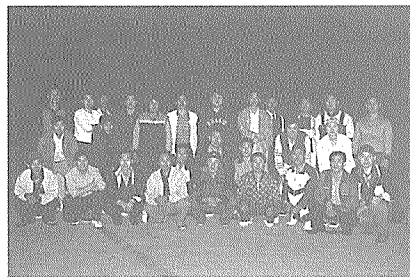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최준휴)는 지난 11월 1일 동구 금남중학교에서 박종철 동구청장 등 관련인사와 회원 210명이

회원제에서 대의원제로 치루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99년도부터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3년마다 기존업주 교육이 실시되는 해에는 회원제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회는 이날 5개 지부별로 축구, 배구, 릴레이 등 체육대회를 실시한 결과 우승은 광산지부, 2등 남구지부, 3등 북구지부, 4등 동구지부, 5등은 서구지부가 각각 차지했다.

## 관악, 남이섬에서 단합대회 실시

임원 및 지역장 참가 지회 발전 다져



관악지회(지회장 김종남)가 지난 10월 21일 남이섬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지회 임원 및 지역장, 회원 등 37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관악지회는 족구 경기와 노래 자랑을 실시해 회원 간 단합과 친목을 굳게 다졌다.

관악지회(지회장 김종남)가 지난 10월 21일 남이섬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지회 임원 및 지역장, 회원 등 37명이 참가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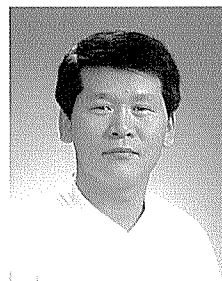
## 마포지회, 서교동으로 사무실 이전

마포지회(지회장 장공희)가 지난 11월 말 사무실을 망원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전했다.

■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3-1 ☎ 334-6090

## 논산지부 새지부장에 전중업씨

지율지도, 공동구매 등 주요사업도 확정



논산지부는 지난 10월 13일 관련 업계 인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산지부는 유로팜 베이커리의 전중업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지부 임원을 개선했다. 다음은 이번엔 선출된 임원 명단이다.

- ▲지부장 : 전중업(유로팜베이커리) ▲부지부장 : 이용철(가나안제과)
- ▲총무 : 고용오(케익하우스) ▲재무 : 고중열(풍년제과)
- ▲이사 : 임남수(코리아나베이커리), 주만섭(장글제과 남부점), 김필중(태극당 연무점), 손경운(뽕굽는 큰마을), 최민우(명인제과), 구민서(독일제과), 박충수(노성제과), 김선우(고려당 연무점)